

학교서 찍은 작은 영화...감독·배우 모두 학생

광주지혜학교 영화제작 수업 화제 '한발짝 더'·'주인을 찾습니다' 촬영 12월2일 광주독립영화관 상영회

"영화를 찍으면서 다름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용 용체' (종결어미에 '용'을 붙이는 말투)를 쓰기로 우리끼리 약속했어요. 그러면 화를 내도 '이건 아니지용'처럼 귀여운 말투를 주고받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거든요. 우리 나름의 '지혜'랄까요?"

촬영을 알리는 슬레이트가 내려오고 얼마 안 돼 '학생 감독'은 '컷'을 외쳤다. 영화 담당 선생님의 자택 다락방에 모인 예닐곱 명 학생 영화팀은 작은 창고에서 여학생이 뛰쳐나오며 슬며시 웃는 장면을 촬영 중이었다. 기사가 불 때 학생 배우의 미소가 산뜻했지만 예리한 감독 눈에는 어딘가 아쉬운 모양. 거듭 '컷(NG)'을 외치는 모습에선 어느 기성감독 못지않은 치열함이 느껴졌다.

다시 반복한 학생의 연기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그제야 현장에 있는 모두 만족했다는 듯 'OK' 사인을 주고받았다.

8일 오전에 방문한 지혜학교(교장 이남욱·광산구 박호등입로 485)는 학교 전체가 영화 세트가 되는 오픈 스튜디오를 떠올리게 했다. 2009년 설립된 대안학교인 지혜학교는 기존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이유에서 입학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년 전에는 수능 만점자를 배출하면서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정규교육 과정과 달리 지혜학교는 철학수업, 해외봉사활동, 인문·철학을 접목한 연극공연, 도보 기행 및 생태수업 등 이색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중 '영화제작' 과정은 단연 인기 과목. 지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에 학생들이 만든 작품 '안식의 조건'이 초청작으로 상영됐으며 올해 영화 '똥단지'가 대한민국 청소년미디어대전(KYMF)에서 400여 편과 경쟁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선배들이 좋은 결과를 이룬 것은 기쁘고 축하



지혜학교 교실 안에서 영화 '한발짝 더'를 촬영하는 장면. 학생감독과 팀원들이 머리를 모아 다음 씬을 의논하고 있다.

할 일이라 생각해요. 다만 후배로서 훌륭한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오죠. 지금은 조연출을 맡고 있는데, 팀원들과 의지하면서 부담감을 이겨내는 중입니다"

이날 '장구발레가 머리에 붙어버렸다'라는 독특한 이름의 학생 영화팀은 작품 '한 발짝 더'를 교실에서 촬영 중이었다.

사라진 친구가 미래와 과거를 오가면서 '양아치'가 되기도 하고, 평범한 학생도 되는 사남시스는 과장된 사건이 없지만 몰입감이 뛰어났다. 사전에 계획된 컷 씬에 따라 카메라로 점프하듯 '타임슬립(시간여행)' 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다들 진지하게 응했다.

같은 시간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영화 선생님의 나무 다락방에서도 영화 '주인을 찾습니다' 촬영이 이어졌다. 주인을 잃어버린 분실물들을 하나씩 모으던 주인공이 '진짜 친구'를 만나 성장한다는 내용이다. "자세한 사남시스는 공식 개봉 후 필름으로 확인해달라"는 학생들의 말에서 쫘나루

영화인들의 패기 같은 게 엿보였다.

두 작품 모두 청소년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우정, 교우관계 등을 주제로 한다. 기성의 문체를 벗어난 학생들의 방식으로 짜여진 사남시스와 촬영 방식은 이채로웠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변 소음, 들어오는 햇빛, 미세한 표정까지 세밀하게 체크했다.

이남욱 교장은 "학생들이 자아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영화제작"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철학과 인문학 등 동아리 활동으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혜학교는 광주시에 소재한 중·고교 통합과정(6년) 대안학교로 연극(3학년), 영화(4학년) 수업을 하며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수년간 운영해 왔다.

이날 촬영한 두 작품은 12월 2일(오후 7시) 광주독립영화관GIF에서 상영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사람·자연·유물...담양의 향기

조선의 시인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펴내

"과거가 미래를 향해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사진) 시인은 담양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조 시인이 담양을 직접 답사하며, 몸소 체험하며 쓴 시를 묶은 시집을 펴냈다. 아홉번째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상상인)는 담양의 사람과 자연, 유물 등을 모티브로 상상과 인문의 깊이를 더한 작품집이다.

무엇보다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라는 작품집 제목이 눈에 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담양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감을 뜻하는 말로 시적인 표현이 눈길을 끈다. 조 시인은 "담양에서 오랫동안 시작 강의와 인문학 강의를 했던 연료로 담양은 언제와도 늘 푸근하며 아름다운 고장으로 다가온다"며 "담양을 알면 알수록 이전에는 몰랐던 매력의 새록새록 다가와 시작장의 새로운 영감이 된다"고 말했다.

"탐신에 이끼가 돌아났다// 뜬 눈으로 천년을 꽃피어 선/ 석불 내부는 언제나 위태로웠다// 나는 지금 없는 아버지와 동거 중이다// / 쓸모없는 돌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세월을 되짚듯 어둠을 깨는 아버지는/ 더운 내 가슴 한가운데로 불면을 흘려보냈다// 수 세기에 걸쳐 깊어진 석불은/ 상처 입은 마음을



살피는 이 땅의 은자."

위 시 '분향리 석불입상'은 담양군 가사문학분향리에 있는 유형문화재 제144호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작품 속 화자는 석불을 조각하던 석공의 모습을 "세월을 되짚듯 어둠을 깨는 아버지"로 치환한다. 그렇게 "수 세기에 걸쳐 깊어진 석불은 상처 입은 마음을 살피는 이 땅의 은자"로 표현된다.

이성혁 문학평론가는 "유물들로부터 사라진 것들을 상상하고 나아가 그 상상을 통해 사라진 것들이 말하는 바를 들으며 이를 기록하고자 하는 시작 태도. 다시 말해 담양의 유물들이 은밀히 말해주는 사라진 것들로부터 시인은 시 쓰기의 영감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재능시낭송협회의 30주년 정기공연 장면.

(광주재능시낭송협회 제공)

'민아X슬기 퀸텟 재즈 콘서트'

17일 광주예술의전당

클래식 애호가라면 한 번쯤 유튜브 채널 '또모'를 들어봤을 것 같다. 다양한 신진 예술가들이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채널에 출연했던 예술가들이 여러 차례 주목받은 바 있다.

채널 또모를 통해 데뷔한 이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재즈듀오가 광주를 찾는다.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는 '민아X슬기 퀸텟 재즈 콘서트'에 출연하는 '서민아', '주슬기'가 바로 그들.

공연은 두 사람을 중심으로 김상변(색소폰),

이동민(콘트라베이스), 허예찬(드럼)이 함께 올라 퀸텟(5중주) 무대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수백 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악곡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Over the rainbow', 'O Pato', 'Just the Two of Us' 등 재즈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외 'Valerie', 'That's All', 'The Nearness of you' 등 대중에게 사랑받는 재즈 곡 총 14편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재즈보컬 서민아는 서울예대, 동아방송에대 동시 합격했으며 '리듬스터디', '리마인드 이션희' 등 폭넓은 음악세계를 펼쳐 왔다. 일명 '고막 여친'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는 화제의 아티스트. 이와 함께 듀오활동을 해온 재즈피아니스트



재즈 듀오 '민아X슬기'의 주슬기(왼쪽부터), 서민아.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주슬기는 단독콘서트 5회 전석 매진 등을 기록해 왔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시낭송, 그 황홀한 감동을 전하다

광주재능시낭송협회 30주년 정기공연 성료

'시낭송, 그 황홀한 울림&감동'을 주제로 한 광주재능시낭송협회(회장 김문순)의 30주년 정기공연이 막을 내렸다.

지난 8일 오후 3시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은 30주년과 맞물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공연은 최병민, 유상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시와 요들송, 시 퍼포먼스, 한국 무용, 팬플룻 연주,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먼저 김문순 회장과 박영미 부회장이 김정희 시 '먼 훗날에의 다짐- 친구 기순에게'를 낭송했다. 이어 유상규의 색소폰 연주와 김효연의 요들송이 울려퍼졌다.

1년 동안 갈고 닦은 시 퍼포먼스 공연도 무대에 올려졌다. 김혜숙 팀장이 주축이 된 '별이 빛나는 밤에', 김영이 팀장이 함께한 '그대에게 가고 싶다', 박복숙 팀장이 중심으로 한 '들길을 걸으며'를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문순 광주 재능시낭송협회 회장은 "1년간 회원들의 열정과 단합으로 만든 이번 공연은 어느 때보다 의미있고 가치 있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며 "시의 향기로 채운 이번 노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 것이며 실렘에서 '울림'으로 이어져 모두의 가슴에 박힌 감동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 Card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온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온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